

이용철 前청와대 법무비서관 ‘뇌물’ 폭로 파문

“삼성돈 받았다 돌려줬다”

삼성측 법무실 통해 현금 500만원 든 ‘명절 선물’ 배달해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삼성 이견회 불법규명 국민운동’이 19일 공개했다.



1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택근 변호사가 삼성이 이용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낸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에 임명된 이 전 비서관은 2003년 12월20일부터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에 따라 중전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통합한 새 법무비서관 보직을 맡았다. 이 전 비서관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그는 보직이 바뀐 직후 이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명절에 회사에서 내 명의로 선물을 보내도 괜찮겠나”라고 물어봐 한과나 민속주 등의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를 수락했다.

자 중 하나인 삼성이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섯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집사람에게 ‘삼성이 간이 부은 모양’이라고 하고 이 사실을 폭로할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은 사건의 일각인 ‘뇌물꼬리’를 밝혀봤자 이 변호사라는 꼬리만 자르는 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을 우려해 증거 사진만 찍어두고 이 선물을 이 변호사에게 돌려줬다고 국민운동은 전했다. 국민운동이 공개한 증거 사진을 보면 이 선물은 책 상자 정도의 크기였으나 포장지 안에는 책이 아니라 100만원 단위로 묶인 현금 다발 5개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이 전 비서관은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보며 당시의 일이 매우

문국현 “참여정부 실정부터 사과해야”

신당 정동영 후보 단일화 제의에 ‘유보적’ 광주 방문 “서민경제 살리겠다” 지지 호소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는 19일 대통령후보 단일화 제의에 대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5대 실정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낮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무원칙한 통합과 단일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왜 국민이 불신하는가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KBS광주방송총국과 전주방송총국 주최로 생중계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는 “국민은 다른 데 관심이 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력을 자꾸 통합하려 한다”며 “더 이상의 단일화 논의는 한국의 미래를 죽이는 일로, 우선 실정(失政)을 인정하고 국민을 감동시키고 백의 종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도중 대통령후보 단일화 강기정 의원의 전화 연결을 통해 “(단일화) 방법은 다양하다. 모바일 투표도 가능하고 각본적인 것은 협의

가능하지만 22일이 선거법상 마지막 D-데이가 아닌가 싶다”며 “모든 세부적인 것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단일화를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11일자 모바일 투표를 보면 나와 정동영 후보가 (지지율) 사실상 같다”며 “모바일을 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봤자 둘이 합해서 20%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 그렇지 않는 단일화는 계속 블랙홀로 빠져든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호남 발전 정책과 관련 “호남 재창조 계획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산학협력 경쟁력을 갖춰 새로운 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1시간여동안 말바우시장을 돌며 “서민경제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은 “통합 안하면 절대로 안된다”며 적극적인 통합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가 19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을 방문,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상인들과 악수하고 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삼성, 국민불신 증폭될까 ‘당혹’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에 이어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삼성의 뇌물 제공 의혹을 제기하자 삼성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이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일단 “회사 차원에서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 전상무와 접촉을 시도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이 전 비서관의 추가 의혹 제기로 삼성의 부정·비리 폭로 사태가 확산될 뿐 아니라 삼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삼성에 대한 국민 불신 ‘증폭’ 되나=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사태에 이 전비서관까지 가세하자 삼성 고위 관계자들은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삼성엔 김 변호사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해도 “삼성엔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생긴 개인 감정으로 인해 근거없는 허위 폭로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 변호사에 이어 이 전비서관이 “금품전달”을 추가로 폭로하자 삼성은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설 불리 반박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 대응 주목=삼성엔 연이은 뇌물 제공 의혹 제기로 삼성이 비리의 온상이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삼성은 김 변호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모두 허위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김 변호사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이병철 선대회장 추모식을 대폭 축소하고

이견회 회장이 감기몸살을 이유로 선전 추모식에 불참함으로써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극히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다.

◇‘A급’ 위기시대, 장기화 우려=삼성엔 연이은 폭로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 변호사, 이 전비서관이 로비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데다 정치권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단체의 수사 촉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임직원들은 이에 따라 김 변호사의 폭로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가 심각한 측면에서 과거 그룹에 큰 위기를 가져왔던 안기부 ‘X파일’, 2002년 대선자금 의혹, 이견회 회장의 ‘베이징 발언’ 등과 맞먹는다고 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비자금’ 수사본부장 박한철 울산지검장 임명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삼성 비자금’ 사건의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장에 박한철(54·사시 23회) 울산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김경수 홍보기획관은 19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박한철 검사장이 공정성과 업무능력을 함께 갖춘 수사·감찰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검찰총장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미 기소됐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공소 유지와 보안 수사를 지휘한 바 있으며, 지난해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지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와는 함께 근무한 적이 없으며, 울산지검장은 당분간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연합뉴스

“이런 공천이면 무소속 출마”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 등 탈당 반발

민주당과 통합민주당의 12·19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 공천에 일부 예비후보들이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장흥군수 재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19일 “중앙당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결정했다”며 “지지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남도위원을 지낸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장흥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왔으나 공천과정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다”며 “당헌·당규에 의한 경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전락 공천으로 이뤄진 만큼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장흥군수 후보로 백도선 전 장흥군수를 선정했다.

또한 광주시 동구 제1선거구, 북구 제3선거구 등 광역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통합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신이성·송태중 전 광주시의원 등 5명의 예비후보들은 최근 여론조사 30%, 후보추천심사위 심의 결과 50% 외에 지역구 현역의원 의견을 20% 반영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공천권을 넘겨주는 처사”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는 사전에 특정후보를 염두에 둔 비민주적 공천으로 당헌·당규에 그런 조항은 없다”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후보자 선출을 촉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han Hwaehae (대한화재) insurance. It features a couple sitting on a bench and text that says '고객님의 지금 약속 대한화재 피오레가 지켜드립니다!' (Your current promise is protected by Daehan Hwaehae Pioré!).